전북대, 실험실 창업 '으뜸 인큐베이터'

교육부·과기부 선정 5개 대학 중 비수도권 '유일'
3년간 총 15억 내외 예산 확보… 후속 연구 지원
일반 창업보다 고용 창출 효과·기업 생존율 우수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일반 창업뿐 아니라 실험실 창업에 있어서도 국내 최고의 인큐베이터임을 입증했다.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일반 창업뿐 아니라 실험실 창업에 있어서도 국내 최고의 인큐베이터임을 입증했다.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신규 추진한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에 비수도권 대학 중 유일하게 선정되어, 3년간 총 15억 내외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은 선정 대학에 대학원 창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실험실 교직원 인건비 등 실험실 창업 인프라 조성자금과 함께 후속 연구개발자금, 바이오·나노 등 대학의 유망 기술 발굴 등 실험실 창업 준비 자금 등을 연간 5억 원 내외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험실 창업'이란 대학에서 논문 또는 특허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술집약형 창업'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아이디어 창업'과는 구별되고, 일반 창업과 비교해 볼 때 고용 창출 효과 및 기업 생존율이 우수하다.

이번 지원을 통해 전북대는 우수한 실험실 아이템을 중심으로 융·복합 기술 중심의 창업 교육 및 비즈니스 모델 검증을 통해 후속 연구개발 사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창업지원단은 지난 2015년 창업선도대학에 선정된 이래 4년 연속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2017년 우수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됐다. 창업아이템 사업화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창업아이템 사업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를 모집해 꾸준히 지원해 왔다.

권대규 창업지원단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 내의 우수한 실험실을 발굴하고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교내 창업 문화를 활성화하고 산·학·연·관 간에 활발하게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호원대 학생상담센터 운영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학생상담센터에서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호원대동제 기간을 활용하여 인당도서관 앞 축제 장소에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음건강 이동상담실'을 운영하였으며, 이틀간의 활동에 재학생 120명에게 상담이 이루어져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찾아가는 마음건강 이동상담실'은 학생상담센터를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운영되었으며, 재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직접 찾아가는 이동식 상담으로 우울, 불안, 인터넷 중독 검사를 비롯하여 간이심리검사와 성적의사결정능력검사, 성희롱·성폭력 인지도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상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상담실 이용 안내와 학생상담센터의 "HAPPY UP 프로그램" 안내를 비롯하여, 장애인식 개선 리플릿도 배포하였다.

이미영 학생상담센터장(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은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축제 기간의 야외장소에 찾아가는 마음건강 이동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적극적인 홍보와 다각적인 방법으로 위기 학생을 발굴하려고 도모하였으며, 앞으로도 재학생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지원하고 학교 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반

원광대, 동북아 에너지환경 변화·전환 세미나 열어

천연가스산업연구회 공동 주최
'3020 에너지 전환 정책' 분석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는 지난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천연가스산업연구회와 공동으로 '동북아 에너지환경 변화와 에너지 전환 세미나'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원광대와 한국가스공사가 체결한 상호협력 및 학술교류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1, 2부로 나눠 진행된 학술대회는 1부에서 박희천 인하대 교수를 좌장으로 양준모 연세대 교수,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박상철 산업기술대 교수, 김진오 블루이코노미 전략연구원장, 정성삼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과 동북아시아, 유럽의 에너지 현안과 정책을 비교하고 분석했다.

특히 1부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추진되고 있는 '3020 에너지 전환 정책', 즉 2030년까지 한국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수급의 20%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발전 비중을 증가시키려는 현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대책 모색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2부에서는 류권홍 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원광대 최재덕, 문신 교수가 '21세기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휴너지-동북아문학으로 본 감성에너지'를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섰으며, 최재덕, 문신 교수는 동북아시아의 에너지 문제에 산업적, 정책적으로만 접근하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인문학적, 국제정치 소양을 통해 '인간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에 중점을 둔 발표를 이어갔다.

한편, 문신 교수는 동북아 문학을 통해 자연 에너지를 감성 에너지로 전환시켜 동북아시아의 급속한 경제적 성장 속에서 우리가 잊어가고 있는 인간 내면의 가치인 추억과 행복의 문제를 되살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인간 감성에 불꽃을 당기는 창조적 영감으로서 에너지가 자리를 잡아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문신 교수의 발제는 비(非)인문학자들이 주로 참여한 이번 세미나에서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으며, 인문학적 소양이 에너지 정책과 결합해 어떤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익산=장양원 기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교육

전북교육청은 30일 오전 군산대학교 강의실에서 군산시내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공사립 유치원장, 초등학교장, 특수학교장 등 차량운영자와 운전자, 동승보호자 22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교육은 지난 23일 유치원 등원시간에 통학차량에서 잠들어 있던 원아를 1시간 50분 동안 방치했다가 지나가는 시민이 신고해 구출한 군산지역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학교현장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실무자들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는 등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학교장(원장)들이 학생안전 전반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문제 전반을 살펴보고, 통학버스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소양과 업무 매뉴얼에 대한 교육, 도로교통법의 이해, 국내 사건사고 사례, 차량 내 갇힘사고(안전사고) 방지 방안, 역할별 임무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했다.

/기동취재반

군산대학교 물류학과가 최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된 한국SCM학회 2018년 춘계컨퍼런스 대학생 SCM경진대회에 참가해 금상을 수상했다.

배송프로세스 차별화 '결실'

군산대 물류학과, 대학생 SCM경진대회 금상

군산대학교 물류학과가 최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된 한국SCM학회 2018년 춘계컨퍼런스 대학생 SCM경진대회에 참가해 금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얻었다.

한국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사슬경영)학회는 국내 학계 및 산업계의 SCM 전문가들이 관련분야 기술발전 및 제품연구, 개발을 위해 교류하는 단체로 2000년에 설립되었다.

이번 경진대회에 군산대학교는 물류학과 3학년 정해련 학생을 팀장으로 3학년 김수현, 백정아, 2학년 박수아가 팀원으로 참여하였고, 고현정 교수의 지도하에 "배송스타트업 기업의 Hyper-customizing을 위한 사륜차-이륜차 연계 정시배송프로세스 설계"를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배송스타트업 기업이 새로워지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차별화된 배송프로세스를 설계하여 효율적인 정시배송을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정했다.

정해련 학생은 "이렇게 큰 대회에서 큰 상을 받아서 정말 기쁘다"면서 "대회 준비를 위해 끝까지 고생해준 팀원들에게 고맙다"고 밝혔다. 또한 정해련 학생은 "힘은 들었지만 학업에서 배운 것을 실제에 적용해보기 위해 발로 뛰고 머리를 싸맸던 과정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큰 자산이 될 것 같다"면서 "고현정 지도 교수님, 팀 연구를 지원해준 글로벌물류인력양성사업단, 사업단 유치를 위해 노력하신 물류학과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군산대학교 물류학과는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 글로벌물류인력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다. 사업단의 세부 프로그램인 맞춤형 학습모임을 통해 다양한 주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기동취재반

전주교대, 전북도교육청 실무회의 실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는 최근 본부동 2층 회의실에서 MOU 체결에 따른 세부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전라북도교육청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4월 17일 전북도교육청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에 이어 참학력 포럼 및 혁신미래학교 정책개발 협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무자 회의이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도교육청에서 나영성 혁신과장을 비롯해 장학관 및 장학사들이, 전주교대에서는 총장을 비롯해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대학원장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했다.

주요 회의 내용은 참학력포럼개최에 대한 사항, 농어촌 소규모학교 실습 여부, 실습체계의 개선, 연구년제 과정 운영, 교감 및 장학사 파견문제 등이 차지했다.

김우영 총장은 "오늘처럼 세부적인 의견교환이 양기관 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